



하루에 하나

2026.9.28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5	8	9	10	11	12
13	12	15	16	17	18	19
20	19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358.40원 (+0.20원)

KOSPI

7,080.92 (+63.01, +0.90%)

KOSDAQ

844.48(+10.10, +1.21%)

국고채 10년 금리

4.392(-0.069%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inv.com

Special Report

중국 테마 전략 우주 산업 승부의 출발점, 로켓 [김성은]

Global Asset Strategy

화수분전략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5%, 주식은 괜찮을까 [이재만]
김경환의 China Weekly 美中, 만남 자체가 성과인 시대는 무엇을 의미하나? [김경환]
신흥국 전략 인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 [김근아]
해외채권 연휴 기간 채권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나 [허성우]

기업분석

대봉엘에스 K뷰티에 헤어케어까지, 수출 모멘텀 수혜 확대 중 [박종대]
메쥬 온라인 올인원 라이트 패치 [박찬술]

산업분석

자동차 중국 전기차, 지금은 배로 2027년부터는 공장에서 [송선재]
증권 Digital Finance Conference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고연수]
Weekly
은행 금리 변동성 확대로 defensive 매력 부각 예상 [최정욱]
철강금속 한국산 유정관(OCTG)의 미국향 수출 관세 부담 확대 [박성봉]
반도체 및 소부장 견조한 업황과 예상을 상회하는 메모리 가격 [김록호]
에너지/화학 미국 태양광 가격 상승 중 [윤재성]
2차전지 미중 회담 리스크 해소 [김현수]
디지털자산 SEC, CFTC 제도화 지속, 국내는 선제적 움직임 [이준호]

글로벌리서치

Hana China Weekly 중국 AI 모델 고도화 지속, 전기차는 무역 리스크 부각 [백승혜, 송예지]
HANA US Weekly 메타 뮤즈가 보여준 범용 에이전트 AI의 경쟁법칙 [강재규]

단기투자유망종목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두산, DN오tom티브, 세아베스틸지주, 해성디에스, 올릭스, RFHIC, 티앤엘,
더블유씨피

China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23일 | Global Asset Research

중국 테마 전략 ②

우주 산업 승부의 출발점, 로켓

상업 우주 패권 경쟁의 패러다임 변화와 위성망 선점 경쟁

우주산업의 패권 경쟁은 과거의 단순한 도달 경쟁에서 벗어나 궤도, 주파수 등 우주 인프라를 선점하는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저궤도는 통신 지연이 낮아 위성통신과 지구관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대규모 위성망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수천~수만 기의 위성을 단기간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발사 능력과 낮은 발사 비용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발사체가 우주산업의 단기적인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역시 GW와 Qianfan 등 대규모 저궤도 위성망 구축을 추진하면서 발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기존 국가 주도의 창정(長征) 계열 로켓에 더해 LandSpace, Orienspace 등 민간 발사체 기업이 실제 위성 발사에 참여하면서 발사체 공급원이 다변화되고 있다.

중국 재사용 로켓 기술의 빠른 추격, 좁혀지는 미중 격차

대규모 위성 배치의 성패는 로켓 원가의 대부분을 발사 원가 절감 능력에 달려 있다. 로켓 발사 비용 중 1단 엔진과 기체 동체 등 하드웨어가 원가의 90% 이상을 차지하므로 하드웨어의 회수와 재사용 없이는 상업적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미국 SpaceX가 재사용 기술을 기반으로 발사 한계비용을 약 70% 절감하며 기술 성숙기에 진입한 가운데, 중국 역시 2026년 창정 10호 옴의 해상 그물망 포획과 LandSpace의 Zhuque-3 1단 수직착륙(VTVL)에 잇달아 성공하며 재사용 기술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기술 격차는 기존 10년 안팎에서 3~5년 수준으로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며, 중국도 2030년대 초·중반 고빈도 재사용 체계 구축을 가시화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반복 재사용에 유리한 ‘액체산소-메탄 엔진’ 개발(목표 모델의 37% 채택)과 스테인리스강 기체 전환, 3D 프린팅 등 공정 혁신을 민간 주도로 가속화하는 추세이다.

중국 우주테마 투자, IPO를 넘어 사업화 검증으로

미국은 SpaceX를 중심으로 우주산업의 기술 성과가 실제 매출과 수주로 연결되며 기업가치가 실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핵심 민간 로켓 기업의 IPO와 사업화가 본격화되는 단계이다. 특히 A주 내 기존 방산·항공 기업의 상업 우주 순수 노출도가 제한적인 만큼, 향후 중국 우주테마의 재평가는 순수 우주 플레이어의 자본시장 진입과 함께 기술 성과를 실제 사업성으로 전환하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 우주테마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기술 개발 자체보다 기술의 사업화 속도와 수익성 검증에 있다. 이를 판단할 핵심 지표로는 ① kg당 발사 가격 및 원가 구조, ② 로켓 재사용 횟수, ③ 연간 발사 처리량을 제시할 수 있다. 안정적인 발사 수요를 확보한 가운데 재사용과 양산을 통해 발사 원가를 낮추고, 이를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하는지가 향후 민간 로켓 기업의 기업가치와 차별화 요인이 될 전망이다.



Analyst 김성은 seongeunk@hanafn.com

2026년 9월 28일 | Global Asset Research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화수분전략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5%, 주식은 괜찮을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섰다(9/25일, 5.16%). S&P500지수 기준 일드갭은 3bp로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채권 대비 주식 투자 매력이 소멸되기 직전이다.

다만 국제 유가 하락이 S&P500지수의 조정 압력을 완화했다. 9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8월 말 대비 41bp 상승)은 기대인플레이션(2bp 상승)보다는 실질금리(39bp 상승) 상승으로 거의 다 설명된다.

현재 국제 유가의 등락은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여부가 결정한다. 국제 유가의 변동성 확대 리스크는 여전하지만, 상당 기간 지속된 전쟁 리스크에 대한 가격 민감도 둔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발생했던 3월 중 국제 유가 선물시장에서 투기적 매도 대비 매수 포지션 비율 고점은 4.1배(러/우 전쟁 당시 9.2배)까지 상승했지만, 8~9월 중 고점은 2.4배로 크게 낮아졌다.

우선 국제 유가 정점 형성 이후 하락 가능성을 고려(국채금리 동반 하락)한 포트폴리오 전략은 WTI 레벨 변화 즉 WTI 가격 배럴당(현재 92 달러) ① 90→80 달러, ② 80→70 달러, ③ 70→60 달러로 하락 시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업종을 구별해 둘 필요가 있다.

S&P500지수 내에서는 WTI 가격 ① 80 달러 수준에서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반도체, 미디어, 소프트웨어, ② 70 달러 수준에서는 소비재, 미디어, 반도체, ③ 60 달러 수준에서는 자동차, 하드웨어, 반도체 순으로 높은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다. 현재와 같은 고유가에는 반도체가 유리하지만, 유가 레벨이 낮아지면 소비 관련 업종도 부각된다.

국내 증시에서는 WTI 가격 하락이 외국인 순매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과거 WTI 가격 70~80 달러에서는 순매수, 60 달러 수준에서 순매도 기록)까지 고려해 WTI 가격 ① 80 달러 수준에서 외국인 순매수 기반으로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업종은 전력기기, 반도체, 방산, 조선으로 집중된다. ② 70 달러 수준에서는 증권, 건설, 소프트웨어, 운송, 미디어, 자동차 등과 같은 소비재로 확산되고, ③ 60 달러 수준에서는 에너지, 2차전지, 화학으로 업종 변화가 나타난다.

한편 또 다른 시나리오는 미국 Tech(AI) 투자 증가가 이끄는 현재 구조가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해도 시중금리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다. 해당 시나리오의 경우 금리 하락 확인에도 시간이 걸린다. CAPEX 확대가 금리 상승을 주도할 경우 상승 업종이 확산될 여지도 적다. 미국 CAPEX 주도 업종과 국내 매출 상관관계수가 높은 업종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2026년 CAPEX 추정치는 9월 현재 8,437억 달러로 7월 말 대비 2.1% 상향 조정, 27년 추정치는 1.1조 달러(3.3% 상향 조정)로 전년 대비 31%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CAPEX와 매출 상관관계수가 높은(0.9 이상) 국내 업종은 IT하드웨어, 전력기기, 반도체다(반도체 다음은 조선).



Strategist 이재만 duke7594@hanafn.com
RA 손일수 ilsooson@hanafn.com



김경환의 China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9.28

중국/신흥국 투자전략 김경환 khstyle11@hanafn.com

중국 분석 김성은 seongeunk@hanafn.com

美中, 만남 자체가 성과인 시대는 무엇을 의미하나?

- **전략 관점에서 시진핑 방미 총평** : 금번 시진핑 방미 이벤트는 5월 트럼프의 방중 당시 양측이 제시한 '건설적-전략적 안정 관계'라는 복잡한 수사의 연장선 상에서, '전술적인 휴전'의 연장이자 '만남 자체가 성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는 명확한 한계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한다. 금번 이벤트는 표면적으로 양국의 우호적인 분위기 연출과 다양한 스몰딜 시도 및 지속적인 소통 암시가 양국 관계의 변동성 축소와 극단적인 대립 관련 위험 제거 측면에서 여전히 긍정적이나, 상호 국가 이익 측면에서의 거래 시도와 새로운 합의(광물/이란/대만/기술/AI)가 제한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이 구조적인 변화와 중단기 성과를 가격에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 주말까지 공개된 내용상 미중 무역 휴전의 2개월 연장(2027년 1월) 외에 중국산 비민감 품목의 관세 인하, 희토류 규제 완화, 중국측의 대규모 농산품 구매와 단기 시행, 대중국 기술 규제 변화와 대미국 투자 확대, AI 소통 채널 구축 이상의 성과 등에서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측이 2019년 무역전쟁 1기 당시 거래 총액의 1/10 수준도 안되는 규모의 관세 인하 및 구매 약속으로 시장 시각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 향후 양측의 중단기 성과를 가격에 반영하려면, ①중국이 2025년 10월부터 도입 예고했던 희토류 및 광물 규제의 중단기(1년 이상) 연장 합의, ②양측 비용 부담이 높아진 이란 관련 규제에 중국 참여도 확대 합의, ③대만 문제와 관련 원론적인 경고와 미국의 우회 전략을 뛰어 넘는 상호 변화 확인, ④비민감 품목 이상의 관세 변동이나, 미중 민감 분야 기업의 상호 투자 용인, ⑤양측 AI 관련 소통 채널 이상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시도 등이 확인되야 하지만 2027년 1월까지 각 분야 모두 양측의 전향적인 합의나 액션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평가한다.

‘형식적인’ 미중 관계는 중국 입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나? : 시진핑 집권 3기(2022년 10월~) 대미국 전략 기조는 비정상적인 관세 인상 압박에 강경 대응한 사례를 제외하면 큰 틀에서, 구조적인 디커플링을 위한 시간 확보, 내부 결속과 안정을 위해 실리보다는 정치적인 활용, 상호 간극을 인정하고 기대와 보상 모두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계속 확인된다. 달라진 관계 설정과 제한적인 협력이 중국 경제와 자산시장에 미칠 중장기 영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양측의 안보 관련 합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구조적인 전략·비축 자산 가격에 대한 시장 판단이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 효율보다 명분이 중요한 가운데 비용 부담이 커진 유가·선진국 국채 금리의 고공행진 지속 가능성, 비축 자산인 희토·광물, 금, 반도체, 위안화 등 강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둘째**, 현재 중국의 대미국 전략과 非미국 연대 강화 시도는 중국 자산시장의 변동성 축소와 수출-환을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산업 및 자본시장 정책 관점에서 ‘미국’이라는 강력한 레버리지 수단을 더 빠르게 퇴화시킬 수 있다. 향후 중국 자본시장 및 산업 고도화 단계에서 ‘마이웨이’ 확신이 더 강화되면서 효율성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셋째**, 시진핑 집권 4기(2027년 10월~)와 트럼프 임기 막판까지 중국 기술 자립 정책과 첨단 제조 및 AI 분야 확장(중설/R&D/해외진출) 및 핵심 광물 통제는 현재 시장의 예상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장기적으로 중국 기술 병목(반도체/ 장비)의 돌파보다 내수 회복의 선순환 달성이 더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 중국 서비스업 및 금융 시장 개방이 타이밍을 크게 놓친 가운데, 미국 모델이 아닌 자체 방식에 대한 확신 강화와 장기 시계열로 접근하는 내수 부양 방식은 높은 안정성 대비 반복적인 소비 불황과 디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중국 수뇌부는 수출과 내수의 간극 축소, 자본시장과 전통 신용 채널의 균형 회복, 지방정부의 새로운 재정 모델 구축과 신경제 과열 억제 등 어려운 미션을 동시에 실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2026년 9월 28일 | Global Asset Research

인도

신흥국 전략

인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인도 역시 연내 기준금리 인상 예상, 견조한 내수소비·민간투자 흐름 변수

고유가 지속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면서 인도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지난 8월 RBI 통화정책회의 회의록에서 일부 위원들이 물가 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시장에서는 이를 매파적인 신호로 해석했다. 이후 물가와 환율에 대한 경계감이 한층 높아졌는데, 최근 발표된 물가 지표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8월 헤드라인 CPI는 YoY 4.82% 상승해 7월 4.45%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으며, 컨센서스 4.80%도 소폭 상회했다. 문순 강우 부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방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식품 CPI는 YoY 5.95% 상승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근원물가도 7월 3.8%에서 8월 4.2%로 상승하면서 물가 압력이 식품이나 에너지와 같은 변동성이 높은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광범위해지는 모습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대외 부담은 일부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유가 수준과 광범위해진 국내 물가 압력을 감안하면 RBI의 긴축 가능성은 당분간 유효할 전망이다. 여기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금융여건이 긴축적으로 전환된 점도 RBI의 정책 부담을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RBI가 과잉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RBI가 지난 6월 3~5년 만기 신규 FCNR(B) 예금에 대한 FX스왑 창구를 재도입한 이후 대규모 외화자금 유입되면서 은행권 내 초과 유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실제로 8월 이후 단기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지속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RBI는 역레포(VRRR)와 OMO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 흡수에 나서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통화정책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상기 요인들을 감안하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중시 측면에서 RBI의 기준금리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수소비다. 현재 인도의 소비 모멘텀은 여전히 견조하다. 8월 자동차 소매판매와 GST 징수액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는 등 내수 관련 지표 전반에서 뚜렷한 둔화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노동참가율과 취업자 비율도 상승하는 등 고용 여건 역시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10~11월 축제 시즌이 예정되어 있어 소비 전반의 계절적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도 유효하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이러한 소비 확대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자동차와 가전 등 신용 의존도가 높은 내구소비재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민간투자다. 정부 주도의 CAPEX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기업의 설비투자도 대폭 증가하면서 투자 사이클이 민간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면서 신규 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고, 민간투자 회복 속도 역시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2026년 9월 28일 | Global Fixed Income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해외채권

연휴 기간 채권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나

- 추석 연휴 3거래일 간 미국채 금리는 장기물 중심 상승해 베어 스티프닝 마감
- 기대인플레이션보다 실질금리. 1) 견조한 성장 2) 10월 인상 가능성 3) 입찰 부진과 바이백 실망감. 여기에 프랑스의 재정·정치 리스크도 금리 상방 요인으로 작용
- 미중 정상회담, 이란 협상 모두 금리 상승세 막기는 역부족. 미국채 투자 의견 '축소' 유지

연휴 기간 부진했던 채권시장

결론: 추석 연휴 3거래일(9/23~25) 동안 미국 10년 금리는 누적 20bp 상승했다. 장기금리를 끌어올린 동인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실질금리다. 1) 견조한 성장 2) 10월 연속 인상 가능성 3) 입찰 부진과 바이백 실망감 모두 실질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연휴 3거래일 간 미국채 금리는 장기물 중심 상승해 베어 스티프닝 마감했다. 이에 2/10년 스프레드는 30bp까지 가팔라졌다. 10년 금리를 TIPS 금리(실질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나누어보면 TIPS 금리가 +20bp, 기대인플레이션이 +2bp 상승했다. 연휴 기간 금리 상승은 실질금리가 주도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동인 1] 견조한 성장. 연휴 중 발표된 미국 지표는 모두 경기 호조를 가리켰고, 이는 실질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 9/23 S&P PMI 내 투입비용이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운송비 급등으로 4년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비용 압력은 연준의 추가 긴축 기대를 키워 실질금리 경로로 반영됐다. 9/24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실제 197k vs 예상 201k)와 9/25 애틀란타 3분기 GDPNow(실제 5.0% vs 예상 5.1%) 역시 금리 상방 요인이다. 성장률은 기존 5.1%에서 0.1%p 하향조정됐지만, 2분기 성장률이 1.5%였던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성장 가속은 뚜렷하다.

[동인 2] 10월 인상 가능성. 9월 첫 인상 단행한 이후 시장은 추석 연휴 동안 10월 추가 인상 확률을 높게 잡기 시작했다. 9/23 바 이사와 9/25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이 연달아 나오면서 시장은 10월 인상 확률을 한 달 전 10% 미만에서 현재 64%까지 반영하기 시작했다. 정책금리 경로 상향은 단기물보다 장기물에 더 크게 반영됐다. 추가 인상이 일회성이 아니라 “H4L”라는 경로 자체의 상향으로 해석된 영향이다.

[동인 3]. 입찰 부진과 바이백 실망감. 연휴 중 5년과 7년 입찰 두 건 모두 부진했고, 재무부 바이백은 장기물 금리 상단을 막아 주지 못했다. 특히 5년물 입찰에서는 역대 두 번째 큰 테일을 기록했다. 응찰률도 2018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낙찰금리 5.033% vs 발행금리 5.002%, 3.1bp tailed). 9/24 재무부 바이백에서도 한도(60억 달러)를 채우지 못했다. 매도 제시 물량은 104.6억 달러였지만, 실제 매입은 40.8억 달러에 그쳐 시장은 또다시 “베센트 풋”의 한계로 인식해 금리를 높여갔다.



해외채권 Analyst 허성우
deanheo@hanafn.com

[해외 요인] 프랑스의 재정·정치 리스크 또한 미국채 기간프리미엄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프랑스 10년 금리는 4.69%까지 상승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프랑스-독일 10년 스프레드는 2012년 유로존 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bp를 넘어섰다. 르크르뇌 소수 정부는 10월 초 2027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11/17 표결할 예정이다. 앞선 두 정부가 불신임으로 무너졌고, 2026년 예산안도 2월에야 의회 표결을 우회해 통과됐다.

[미중 정상회담과 이란 협상] 두 이벤트 모두 금리 상승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중 휴전은 기대보다 짧았고, 이란 협상은 유가를 흔들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11/10 만료 예정이던 무역 휴전을 1/10까지 2개월 연장했다. 하지만 시장은 6개월 이상 휴전 연장을 기대했었다. 9/28 세부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지만, 11월 APEC과 12월 G20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연휴 내내 이란과의 협상 기대와 결렬 우려가 번갈아 유가를 흔들었고, 트럼프가 이란의 7일 휴전안을 공개 거절하면서 협상은 다시 원점을 돌아갔다. 트럼프의 거절은 토요일 발표되어 유가와 금리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중동 리스크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결론] 장기금리 상방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국채 지수는 최근 약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장기 추세 평균 수준까지 하락했을 뿐, 역사적 과매도 구간에는 아직 진입하지 않았다. 추세가 꺾이려면 AI 투자 규모가 위축되거나, 금융환경이 추가로 긴축되어야 한다. 결국 금리(기준금리, 10년 금리, 30년 모기지 금리, BBB 회사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거나, 위험자산(주식)의 약세가 동반되어야 한다. 연휴 기간 미국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지만, 당분간 금리 상방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채 투자의견 ‘축소’를 유지한다.

2026년 09월 28일 | 기업분석

Not Rated

현재주가(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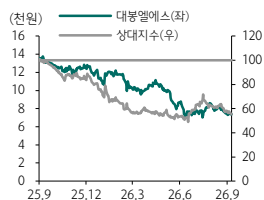
7,38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44.48
52주 최고/최저(원)	13,550/7,020
시가총액(십억원)	81.8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11,086.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7.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0.1
외국인지분율(%)	4.99
주요주주 지분율(%)	
박진오 외 8 인	50.9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N/A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94	88	94	102
영업이익	8	4	9	7
세전이익	11	6	11	15
순이익	9	4	7	10
EPS	778	377	662	907
증감율	48.2	(51.5)	75.6	37.0
PER	10.3	24.3	20.3	12.8
PBR	0.8	0.8	1.1	0.9
EV/EBITDA	4.9	12.4	12.5	14.3
ROE	7.4	3.5	5.6	7.1
BPS	10,567	11,011	12,006	12,858
DPS	50	50	50	50



Analyst 박중대 forsword@hanafn.com
RA 양정석 jsyang@hanafn.com

대봉엘에스 (078140)**K뷰티에 헤어케어까지, 수출 모멘텀 수혜 확대 중****화장품소재: 화장품 수출 증가와 함께 높은 성장세**

사업은 화장품소재와 원료의약품(제약)으로 나뉘어 있다. 화장품소재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화장품소재는 단순 유통을 넘어 바스프(BASF)/루브리졸(Lubrizol) 같은 글로벌 소재 업체 또는 코스맥스/한국콜마와 같은 대형 화장품 ODM 업체와도 R&D 분야 협력/공동개발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주요 브랜드/ODM 업체에 다양한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K뷰티 글로벌 모멘텀으로 2026년 상반기 매출이 YoY 28% 증가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최근 미주 지역 중심으로 헤어케어 제품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원료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더마 헤어케어 브랜드를 미국에서 히트시킨 L사항 매출은 약 7배(1H26 YoY 650%) 증가했고, 세티올 얼티메이트 매출 역시 8배 늘었다. 이외 아이크림/PDRN/진생 펩타이드 원료들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더마뷰티가 유행하면서 원료의약품 부문과 기술적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다.

원료의약품: 2027년 이후 기여도 확대 전망

원료의약품 부문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 분야다. 에피나코나졸 공결정형, L-엘도스테인, 아질사르탄 신규염, GLP-1(리라글루티드) 등 4개 개량신약에 대한 기술이전과 원료공급 등을 기대하고 있다.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까지 일정 수준 실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하반기 환율 하락에 따른 이익 개선 클 듯

3분기 별도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0%, 672% 증가한 256억원과 24억원 수준이 가능할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매출이 증가해도 원가율 상승과 판관비 증가로 이익 개선폭이 제한적이었다. 매출원가 대비 원료 수입 비중이 55%~60%이므로 환율 상승은 원가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송도 사업 완공으로 감가상각비(1H26 YoY +5억원)와 시설 운영비(+1.5억원)를 비롯해 판관비가 증가했다. 하반기는 매출이 YoY 27% 견조한 신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i) 전년도 낮은 베이스(4Q25 사옥 이전 비용)와 ii) 고마진 소재 매출 비중 상승, iii) 원화 강세에 따른 원가율 하락 효과가 더해지면서 영업이익 증가폭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별도 기준 매출은 992억원, 영업이익은 79억원(YoY 13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2026년 09월 28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Not R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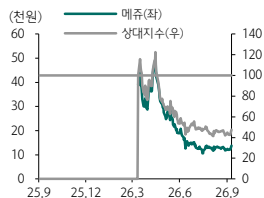
현재주가(9.23) 13,74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44.48
52주 최고/최저(원)	51,300/10,610
시가총액(억원)	1,357.8
시가총액비중(%)	0.03
발행주식수(천주)	9,881.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69.1
60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9.1
외국인지분율(%)	3.87
주요주주 지분율(%)	
박정환 외 4인	39.81
인태베스트 외 2인	5.1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억원)	211	441
영업이익(억원)	45	176
순이익(억원)	101	235
EPS(원)	1,058	2,378
BPS(원)	2,034	4,412

Stock Price**Financial Data**

(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13	38	24	74
영업이익	(32)	(43)	(60)	(28)
세전이익	(69)	(161)	(71)	28
순이익	(69)	(161)	(71)	28
EPS	(1,325)	(3,082)	(1,319)	416
증감율	N/A	적지	적지	흑전
PER	0.0	0.0	0.0	0.0
PBR	0.0	0.0	0.0	0.0
EV/EBITDA	0.0	0.0	0.0	0.0
ROE	75.9	65.9	23.1	27.6
BPS	(1,747)	(4,570)	(5,702)	1,199
DPS	0	0	0	0



Analyst 박찬솔 chansolpark@hanafn.com
RA 김진우 jinwookim1336@hanafn.com

메쥬 (0088M0)**온리원 올인원 라이트 패치****국내 최초로 이동형 원격 환자 모니터링 기술을 사업화한 업체**

07년 기업 설립, 26년 3월 코스닥에 상장한 모바일 원격 환자 모니터링 의료기기 업체다. 연세대 의공학 박사 창업자들이 온디바이스 생체신호 정밀 계측/처리 기술로 개발한 M350 디바이스(본체 길이 70mm x 두께 15mm, 중량 34그램)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메쥬는 기존에 여러 장비를 사용해 환자 생체신호를 측정하던 방식에서, 여러 모니터링 기능을 하나의 소형 패치 디바이스로 통일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측정 가능한 핵심 생체 신호인 심전도/심박수/체온/산소포화도에 26년 연말까지 혈압을 추가해서 최소 5개의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킬러 디바이스를 출시/판매하는 것이 목표다. 전세계적으로 단 하나의 모바일 디바이스(M350)에서 5개까지의 핵심 생체 신호를 연속적으로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제품이 여러 국내 병원에서 실증과 판매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국면이다. 글로벌 혁신 제품인 만큼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산소포화도 식약처 승인 완료. 4Q26 혈압 추가

현재 국내 병원은 의료 파업 사태 이후 우수 의료 인력 확보/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병원별로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시기술을 활용해 의료진의 업무 강도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 의료 병동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메쥬는 AI Algorithm 기반 생체신호 모니터링 솔루션 업체이며, 이 기술을 활용해 HiCardi 시리즈 하드웨어 제품을 병원에 공급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HiCardi+, HiCardi+ H100, HiCardi M300은 모두 바이탈 중에서 심전도에 집중된 디바이스였다고 본다. 생명 유지 직결 바이탈 중 심전도(심장의 전기적 활동)/산소포화도(혈액 내 산소량)/혈압(혈액이 혈관 벽에 미치는 압력) 중에서 현재 2개를 식약처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 연말까지 혈압이 추가되면 제품 매력도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혈압의 경우 일반 병동에서 하루에도 2-3번씩, 중환자실의 경우 연속 측정/특정 시간마다 자동 측정하는 필수 의료 정보이기 때문이다.

투자의견 및 실적 전망

상장 메쥬/씨어스/스카이랩스, 비상장 휴이노/에이티센스/웰리시스가 국내 60만 Bed 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지만 웨어러블이 5만 Bed도 침투 못한 초기 국면인 것을 감안할 때 여러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산업을 키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메쥬는 26년 동아에스티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매출액 190억원(YoY +157.5%), 영업이익 40억원(YoY 흑자전환. OPM 21%) 달성이 가능하다. 기존 성장 속도와 신규 영업망 활용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상장 당시 27년 매출액 가이던스 285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한다. 메쥬의 현 시총 약 1,360억원은 M350의 28/29년 해외 확장 가능성을 보면 매력적인 레벨이라고 판단한다.

2026년 9월 28일 | 산업분석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9월 23일

현대차(005380)

BUY | TP 650,000원 | CP 353,500원

기아(000270)

BUY | TP 190,000원 | CP 115,400원

자동차

중국 전기차, 지금은 배로 2027년부터는 공장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8월 누적 135% (YoY) 증가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부진(8월 누적 -21% (YoY))을 타개하고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8월 및 누적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각각 89.5만대/609.9만대로 78%/71% (YoY) 증가했고, 전체 중국 자동차 판매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월/누적 각각 37.9%/35.5%(+15.9%p)로 높아졌다. 자동차 수출 중 전기차(=신에너지차)의 수출은 각각 51.8만대/332.9만대로 154%/135% (YoY)로 전체 수출의 57.9%/54.0%(+14.5%p)를 차지했다. 특히, 경형/소형 순수 전기차 비중이 50% 중반(+10%p 이상)으로 상승했다. 8월 전기차 수출 중 업체별로는 BYD 18.4만대, 지리 7.0만대, 체리 6.8만대 순으로 상위 3사가 63%를 점유한다(테슬라 3.6만대). 수출 국가는 1~7월 브라질 30.7만대, 벨기에 25.9만대, 영국 23.3만대, 호주 20.8만대, 필리핀 16.3만대, 태국 15.5만대, 독일 9.6만대, 이탈리아 9.4만대, 한국 9.3만대, 스페인 8.9만대 등이다.

직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으로: 중국 완성차의 해외 생산능력 확대

중국 완성차들은 해외 현지 생산도 확대하고 있다. IEA 자료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해외 생산능력은 2025년 약 170만대이다. 2026년 이후 발표된 중설 계획을 더하면 2030년에는 300만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장의 절반 이상이 동남아에 몰려 있고, 전반적인 가동률은 낮은 편이지만, 계획 물량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부품을 수출해서 현지 조립하는 KD 방식으로 현지 생산이 늘어날수록 수출도 늘어나는 구조이다. 주목할 점은 경로별 속도 차이이다. BYD의 헝가리 공장의 양산이 1년 지연되었고, 튀르키예는 2년째 착공이 미뤄지는 등 자체 신설은 느린 편이다. 반면, 유희 설비 인수와 위탁생산은 자본 부담이 적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BYD와 GWM의 브라질 공장들은 각각 포드와 벤츠의 공장들을 인수해 2025년 생산을 개시한 것이다. 체리는 닛산의 남아공/스페인 공장을 각각 인수/합작했고, 샤오펑/GAC는 오스트리아 마그나 슈타이어에 위탁생산을, 립모터는 스텔란티스의 스페인 공장에서 합작 생산을 시작한다. 이렇듯 중국 완성차들의 해외 진출은 기존 완성차들의 설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이 보여준 경로, 유럽 확산은 2027~28년 → 자동차 Valuation의 제약

중국 완성차들의 직수출 증가와 현지 생산 강화는 경쟁심화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일례로 유럽 내 BYD 점유율은 2025년 상반기 0.7%에서 2026년 상반기 1.8%로 상승했고(판매대수 +163% (YoY)), 브라질 내 BYD 점유율은 2024년 3.1%, 2025년 4.4%에서 2026년 8월 누적 7.8%로 상승했다. 특히, 브라질 내 중국 브랜드 합산 점유율은 2024년 6.9%에서 2026년 8월 누적 17.8%까지 상승했는데, 브라질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한 2025년 3분기 이후 점유율이 10%에서 2026년 8월에는 23%까지 상승했다. 주목할 점은 점유율 급등의 방아쇠가 직수출이 아니라 현지 공장 가동이었다는 것이다. 유럽은 아직 그 이전 단계다. 중국 브랜드들의 유럽 점유율이 상승 중이지만, 대부분 중국산이라 EU의 관세와 최저가격제 등이 일부 방어막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내 현지 생산이 증가하는 2027~28년에는 방어막이 약화되고, 브라질에서 확인된 점프가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 경쟁심화는 판매대수보다 판매단가와 인센티브에서 먼저 드러날 것이고, 이 구간 방어막이 확인되기 전까지 완성차 Valuation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박태웅 taewoongpark@hanafn.com

2026년 09월 28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9월 23일

키움증권(039490)

BUY | TP 570,000원 | CP 266,000원

삼성증권(016360)

BUY | TP 175,000원 | CP 91,100원

NH투자증권(005940)

BUY | TP 44,000원 | CP 26,000원

한국금융지주(071050)

BUY | TP 330,000원 | CP 186,400원

증권

Digital Finance Conference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국내 디지털자산 수요는 충분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문제는 수요가 아니다. 국내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 투자 수요의 상당 부분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홍콩과 출발점이 다르다. **홍콩은 리테일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규제와 인프라를 먼저 구축했다.** 정부가 디지털본드 발행을 주도하고, 은행과 증권사가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기관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어왔다.

반면 한국은 리테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먼저 성장했고, 제도와 기존 금융회사의 참여가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우, 향후 신규 투자수요가 얼마나 생겨날 것인지 보다 이미 존재하는 수요를 국내 제도권 금융이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제도화 이후 국내 시장의 사업화 속도가 해외 초기 사례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발행 규모가 아니라 거래 빈도와 유동성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와 사모채권 등 기존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우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범위가 제한적이고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상품부터 적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단계 운영 과정에서 안정성과 효율성, 시장 수요를 점검한 뒤에는 공모증권으로 토큰화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초기 시장에서는 어떤 상품이 얼마나 발행되는지가 제도 정착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확대될수록 발행금액 자체보다 토큰화된 증권이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한다. 초기 발행금액이 예상보다 작다고 해서 시장의 성장성을 낮게 볼 필요는 없고, 반대로 대규모 토큰증권이 발행됐다고 해서 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토큰화 시장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자산이 발행됐는지가 아니라, 발행된 자산이 실제로 거래되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있다.**

2차 유통 확대와 함께 중요해지는 결제 인프라

유통시장이 커지면 다음 과제는 결제다. 증권의 발행과 거래가 블록체인에서 이뤄지더라도 결제가 기존 금융망에 머문다면, 블록체인 도입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토큰증권과 별개의 테마라기보다 온체인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결제수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용도는 가상자산 거래에 집중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토큰화된 금융상품의 결제와 금융기관 간 송금·정산 등 전통 금융과 맞닿아 있는 영역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Analyst 고연수 yeonsookoh@hanafn.com

다만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결제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치 안정성과 상환 대응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요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준비자산의 허용 범위와 유동성, 만기구조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동일한 규모의 준비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예금, 단기국채, 장기국채 등 자산의 구성과 만기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상환 대응 능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 규모가 확대될수록 스테이블코인 자체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시장과의 연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전이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상환 요청이 발생하면 발행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자산을 매각해야 하고, 이는 단기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은행이나 단기금융시장의 불안은 준비자산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워 스테이블코인 상환 수요를 자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이 온체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발행 주체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준비자산 구성도가 함께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체인 거래가 확대될수록 새로운 리스크도 부각

위 요건들이 갖춰지더라도, 발행·유통·결제 과정이 온체인으로 이동할수록 별도의 기술적 위험이 부각될 수 있다. 플랫폼 장애, 스마트계약 오류, 브릿지·오라클 장애, 사이버 공격 등이 대표적이다.

초기 시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존 금융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블록체인의 외부에 별도 원장을 유지하거나, 플랫폼 장애 발생 시 기존 중앙 예약 방식으로 복귀하고 지급결제는 기존 금융망을 활용하는 구조다.

다만 기존 금융 인프라를 백업으로 남겨둘수록 안정성은 높아지는 반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효과는 줄어든다. 반대로 온체인 의존도를 높이면 거래와 결제의 효율성은 개선되지만 기술적 위험이 금융상품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시장이 성숙할수록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을 적용했는지 여부 자체가 아니다. 발행·유통·결제 중 어느 기능까지 온체인으로 이전됐는지, 장애 발생 시 어떤 백업 구조가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한다.

금리 변동성 확대로 defensive 매력 부각 예상

은행 Weekly | 2026.9.28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에도 은행주 초과하락. 이는 1) 반도체 및 소부장 독주 현상과 2) 금리 모멘텀 기대 약화 3) 외국인 순매도 지속 등 때문

- 전주 은행주는 0.6% 하락해 KOSPI 상승률 2.7% 대비 초과하락세를 지속했다. 지난주에도 1) 반도체와 반도체소부장만 독주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비반도체 업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2) 은행주의 경우 추석연휴 직전까지는 글로벌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었으며(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당폭 하락), 3) 전전주부터 돌변했던 외국인의 은행주 순매도 양상이 전주에도 지속되면서 수급 약화 현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는 추석연휴 직전까지는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추석연휴 기간동안 큰폭 상승했다. 전주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4.86%로 한주간 10bp 상승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5.17%로 한주간 17bp 상승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과 미국과 이란간 협상 기대감 등으로 다시 하락 전환했다. 1,357.0원으로 마감해 한주간 28.5원 하락했다. 외국인은 지난주에 KOSPI를 거의 순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은행주는 1,570억원을 순매도했다. 전전주에 이어 순매도 흐름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반면 국내 기관은 KOSPI와 은행주를 각각 2.2조원과 1,550억원 순매수했다. 다만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분 1,100억원 정도를 제외하면 실질 순매수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한다

카카오뱅크 분양잔금대출 출시 반응 좋은 것으로 알려짐. 4분기 4% 이상 성장해 연간 8%대의 목표성장률 달성 회사측 기대

- 카카오뱅크는 9월 16일 분양잔금대출 출시했다. 현재 대상 단지는 약 20곳(수도권 11곳, 비수도권 9곳)이고, 대출금리는 4%대 초반으로 타행대비 금리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출 신청과 실행, 등기까지 모바일로 가능해 편의성이 높고, 금리 경쟁력도 상당해 출시한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시장 반응이 매우 좋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 카카오뱅크의 올해 상반기 대출성장률은 약 2.8% 수준에 그쳤고, 3분기에도 대출성장률은 약 1.1~1.2%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4분기 중 총량규제에서 빚겨나 있는 분양잔금대출 성장세가 본격화될 경우 올해 연간 8%대의 목표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분기에만 4% 이상 성장 기대)
- NIM이 하락하는 전통은행들과 달리 카카오뱅크는 3분기에도 NIM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분양잔금대출 성장세가 회사측 기대만큼 커질 경우 NIM에는 소폭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성장률 회복 측면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추석명절기간 동안 글로벌 국채금리 큰폭 상승. 금리 상방 리스크는 은행주에 defensive 주식으로서의 매력을 부각시킬 전망

- 추석명절기간 동안 글로벌 국채금리가 큰폭 상승했다. 최근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3분기 NIM이 하락하면서 금리 상승이 NIM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지만 이는 상반기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후행적 수신금리 상승과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머니무브 대응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한다
-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경우 NIM은 결국 다시 재상승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국채금리 상승이 유가증권평가의 축소 및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 등을 동반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NIM 기대가 건전성 우려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추세적으로도 금리 흐름과 은행주 주가 방향성이 동일했다는 점에서 금리 상방 리스크는 은행주에 defensive 주식으로서의 매력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곧 공정위의 합의 결과 도출 발표 예상. 매우 큰 규모 아닐 경우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공산이 큼

- 공정위원장은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심의를 마쳤고, 조만간 위원회의 합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합의 도출이 늦어지는 이유를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곧 발표가 예상되는데 관련 이슈가 은행주에 부정적으로 작용해왔던 만큼 부과 과징금이 매우 큰 규모가 아닐 경우 결과 발표는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금주 은행 주간 선호 종목으로 KB금융(매수/TP 235,000원)과 우리금융(매수/TP 43,000원)을 제시



한국산 유정관(OCTG)의 미국향 수출 관세 부담 확대

철강금속 Weekly | 2026.09.28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주간 동향

철강금속 주요 지표 동향

- 국내 철강가격(원/톤)

열연 유통가: 93만원(WoW, 0.0%), 열연 수입유통가: 88만원(WoW, 0.0%), 철근 유통가: 86만원(WoW, -0.6%), 후판 유통가: 99만원(WoW, 0.0%)

- 해외 철강가격(달러/숏톤, 위안/톤) (1 Short Ton=907kg)*

미국 열연 유통가: 1,215달러(WoW, +0.8%), 중국 열연 유통가: 3,310위안(WoW, -0.2%), 중국 냉연 유통가: 3,781위안(WoW, -0.2%), 중국 철근 유통가: 3,209위안(WoW, +0.4%)

- 원재료 가격(달러/톤, 원/톤, 달러/톤)

중국 철광석 수입가: 96.5달러(WoW, -1.0%), 한국 스크랩가: 44.2만원(WoW, -0.5%), 호주 원료탄(FOB): 277.5달러(WoW, -1.2%)

- 주요 비철금속(LME) 및 귀금속 가격(달러/톤, 온스)

전기동: 14,740달러(WoW, +1.5%), 아연: 3,996달러(WoW, -0.5%), 연: 1,907달러(WoW, +1.0%), 니켈: 16,150달러(WoW, +0.8%), 금: 4,288달러(WoW, -2.3%), 은: 64.2달러(WoW, -3.5%)

- 국내 철강 유통가격: 추석 연휴 이전 거래 부진으로 가격 보합, 철근은 제강사들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약보합 기록

- 중국 철강 유통가격: 제한적인 성수기 효과 국경절 연휴 이전 거래 감소하며 판재류 가격 약세, 철근은 강보합 기록

- 산업용 금속가격: 금속별 가격 차별화, 전기동의 경우 중국의 타이트한 실물 수급과 미국 관세 부과 우려로 사상최고치 근접

철강금속기업 주가 동향

- 국내 철강금속기업

POSCO홀딩스: 31.15만원(-4.6%), 현대제철: 3.20만원(-7.7%), 세아베스틸지주: 4.43만원(+2.4%), 고려아연: 111.6만원(-1.6%)

- 해외 철강기업(자국 통화)

BAO STEEL: 5.84위안(+1.4%), A. MITTAL: 61.78유로(-2.1%), NSSMC: 685.5엔(-1.4%), TATA STEEL: 187.97루피(+1.3%), NUCOR: 247.25달러(-0.5%)

- 총평: 글로벌 철강사들 주가, 국가별 차별화. 한국 철강사들 주가 내수 부진과 일부 품목 미국 관세율 인상으로 큰 폭 하락

견조한 업황과 예상을 상회하는 메모리 가격



반도체 및 소부장 Weekly | 2026.9.28

Analyst 김록호 roko.kim@hanafn.com

RA 박규연 gyuyeonpark@hanafn.com

데이터 포인트 및 주간 리뷰: 소부장 강한 반등

- 9월 20일까지 영업일 평균 메모리 반도체 수출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262% 증가한 15.4억 달러를 기록했다. 9월 10일까지의 잠정치(13.0억 달러)와 비교하면 DRAM·NAND·SSD 중심으로 일평균 수출금액이 상승했으나, MCP는 소폭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DRAM은 전년 동월 대비 530% 증가한 7.6억 달러, NAND는 240% 증가한 1.1억 달러를 기록했다. MCP와 SSD는 각각 135%, 203% 증가한 5.6억 달러와 1.5억 달러를 달성했다. 다만 전월 영업일 평균 대비로는 메모리 전체 수출금액이 2.6% 감소했으며, DRAM은 1.5% 증가한 반면 NAND·MCP·SSD는 각각 19.7%, 4.1%, 48.1%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메모리 전 품목이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견조한 수출 흐름을 이어갔다. 분기 마지막 달인 만큼 20일 잠정치와 월 온기 간에 변동성이 다소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한다.
- 코스피 지수는 2.7% 상승하며 한 주 만에 반등했다. 국내 메모리 업체들 주가는 모두 상승했는데, 삼성전자는 9.4% 상승해 지수를 상회한 반면 SK하이닉스는 0.3% 상승에 그쳐 지수를 하회했다. 주주환원정책 발표 이후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폭이 컸었는데, 오랜만에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펀더멘탈하게 보면 두 업체의 주가가 차별화될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삼성전자의 경우 연내 추가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생김에 주가가 반응한 것으로 추정된다.
- 코스닥 지수는 2.1% 상승하며 3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여전히 연초 이후 주가 상승폭은 코스피 68%, 코스닥 -9%로 격차가 크다. 하나증권이 커버하는 업체 중에서는 테스 17.2%, 브이엠 13.3%, 피에스케이 14.1% 상승해 강한 주가 움직임을 보였다. 7월 조정 이후 전공정 장비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오랜만에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다. 연초 이후 주가 상승폭이 컸다는 것을 제외하면 업황 및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했다. 그 외에도 씨엠티엑스 19.3%, 원익머트리얼즈 12.9% 상승해 소모품 및 소재 업체 주가도 양호했다. 누차 언급 중이지만, 소부장 전반적으로 투자 아이디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전망 및 전략: 메모리 및 소부장 비중확대 유효. Micron 실적 발표, 9월 온기 수출액

- 메모리 및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비중확대를 지속 추천한다. 3분기 DRAM과 NAND 가격 모두 하나증권의 전망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하락에 의한 추정치 하향보다 메모리 가격의 상향에 주목해야 한다. 해당 흐름이 지속되는 구간에서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비중확대 전략은 유효하다.
- 소부장 업체들 역시 전반적으로 투자 기회가 많다고 판단한다. 반도체 업체들의 대대적 증설 속에 장비 시장 전망치는 지속 상향되었다.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후공정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공정 및 후공정 업체들 모두 투자 아이디어가 유효한 구간이라 판단한다.
- 한국 시각 10월 1일 새벽에 Micron의 실적이 발표된다. 장기 공급 계약 비중으로 인해 가격 상승폭이 제한되는 가운데에서도 메모리 가격의 상회폭에 주목해야 한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 계약 외의 메모리 가격은 여전히 견조한 가격 상황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가격과 물량 모두 제한된 상황에서 매출액 가이드의 상회폭이 중요할 것이라 판단한다.
- 당일에 한국 9월 수출액 잠정치도 발표된다. 전년 동월 대비 기저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전월 대비 증가폭이 계속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0일, 20일 잠정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온기 데이터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혹시 DRAM 평균 수출 가격이 하락한다면, Vera Rubin형 LPDDR 물량이 급증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반도체 주요 종목 Valuation / Performance / 수급 동향

기업/지수	시가총액 (십억원)	종가/지수	주가 수익률			주간 순매수 (십억원)			PER (배)		PBR (배)	
			1W	1M	YTD	기관	외국인	개인	26F	27F	26F	27F
코스피	5,648,756	7,081	2.7	3.8	68.0	3,493.6	-2,675.6	-9,122.4	6.8	5.2	1.7	1.3
코스닥	474,392	844.48	2.1	1.2	-8.8	-43.0	-205.7	319.5	24.4	18.1	2.9	2.6
삼성전자	1,669,113	285,500	9.4	9.8	138.1	2,358.1	1,589.9	-6,470.8	6.0	4.2	2.6	1.7
SK하이닉스	1,360,177	1,862,000	0.3	11.2	186.0	315.6	-2,160.3	-3,827.5	5.3	4.2	3.5	1.9
주성엔지니어링	9,738	209,500	2.0	18.4	656.3	2.1	-5.7	4.7	215.0	83.2	14.5	12.4
피에스케이	4,194	144,800	14.1	13.4	292.4	17.9	0.4	-17.9	26.4	21.7	6.2	4.9
피에스케이홀딩스	3,519	163,200	2.1	30.8	252.5	-15.4	0.3	13.8	24.9	18.7	5.6	4.4
테스	3,134	161,900	17.2	13.6	263.4	-1.7	33.9	-35.7	28.6	22.6	5.7	4.6
파크시스템스	1,852	264,500	5.0	0.8	26.6	5.6	-3.7	-1.9	39.3	30.4	5.8	4.9
브이엠	1,643	62,400	13.3	10.4	106.6	26.4	-21.6	-4.9	20.1	13.8	6.5	4.5
씨엠티엑스	854	88,500	19.3	21.9	-11.4	6.0	-3.5	-2.0	14.5	10.6	3.6	2.7
원익머트리얼즈	464	36,800	12.9	11.7	19.1	1.5	-2.6	1.1	7.7	6.1	0.8	0.7

자료: 하나증권

미국 태양광 가격 상승 중

에너지/화학 Weekly Monitor | 2026.09.28

Analyst 윤재성 js.yoon@hanafn.com

RA 김형준 do200508@hanafn.com



Weekly Issue: 미국 태양광 가격 상승 중

• 총평

- WTI 92.4\$(-8%), Dubai 113.3\$ (-4%). 정제마진 32.1\$(WoW +1.2\$). 사우디 동서파이프라인 재가동, 안부항 선적 재개로 유가하락
- 미국의 디젤 수출금지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는 중. 다만, EU가 Energy Price Crisis를 선언하며 정제마진 강세는 지속
- 석유화학 강보합세. BDO +11%, BPA +8%, PO/천연고무 +7% 등이 눈에 띈. 천연고무는 13년 래 최대치
- Top Picks: OCI홀딩스, SK이노베이션, S-Oil, 한화솔루션

• 미국 태양광 가격 상승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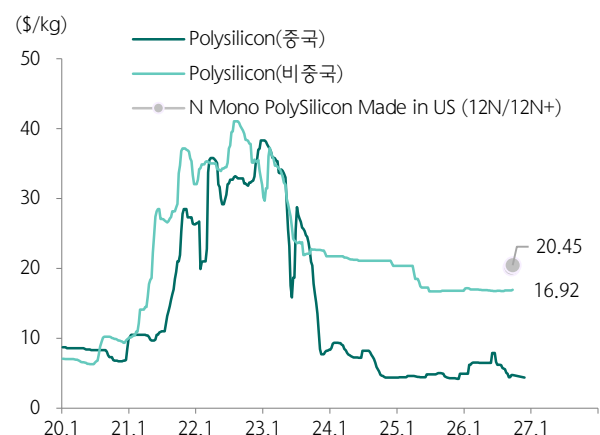
- **공급업체의 태양광 모듈 오퍼가격 상향 제시:** 태양광/ESS 플랫폼 업체 Anza에 따르면, 9/9일 기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공급업체의 55%가 이미 Section 232를 반영한 가격을 제시했고, 이들 제품은 플랫폼에 올라온 모듈의 65%에 해당한다고 밝혀. 12/4일 시행 일 이전에 확보할 수 있는 저가 물량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실제, 8/7일 Section 232 정책 발표 이전 수입 모듈의 중간가격은 0.27\$/W였으나, 이후 가격을 다시 책정한 공급업체들이 개발업체에 제시한 12/4일 이후 납품분에 대한 오퍼가격(중간값)은 0.38\$/W로 상승률 약 40.7%에 달해. 같은 제품에 대해 같은 계약 조건으로 직접 비교 가능한 견적은 약 15%의 상승이 포착. 참고로, Anza는 태양광/ESS 공급업체와 프로젝트 개발사/구매자를 이어주는 조달 플랫폼. 앞서 언급된 0.38\$/W은 개발사들이 실제로 해당 가격에 구매 계약을 끝냈다는 의미가 아닌 공급자의 오퍼가격임에 주의
- **미국 모듈/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중:** 관세지급인도조건(Delivered Duty Paid)의 미국 양면형 Mono PERC 가격은 연초 대비 약 +20% 가량 상승한 0.313\$/W(WoW +0.6%)를 기록. 인도/인니/라오스산 모듈에 대한 AD/CVD 조사에 따른 공급 불확실성과 공급 부족 위험을 반영한 결과. 2026년 초 OBBBA에 따른 PFE 조달 제한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의 프리미엄도 반영된 결과. 이러한 미국 인도가격 상승은 한화솔루션 등 미국 내 생산업체의 신규 가격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요인. 미국산(Made In USA) 폴리실리콘 가격은 20.45\$/kg으로 WoW +0.3\$/kg(+1.5%) 상승. Non-China(비중국산) 폴리실리콘 가격은 16.92\$/kg으로 WoW +0.09\$/kg(+0.5%) 상승. 12/4일 Section 232 시행을 앞두고 MIP 가격 21\$/kg에 근접해 가는 모습
- **결론:** 1) 12/4일 Section 232 시행을 앞두고 미국 모듈/폴리실리콘 상승세 포착. 시행 후 상승세는 더욱 가파를 것 2) AI/반도체, 방산/우주 등의 미중 패권경쟁에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과 엮인 태양광 산업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자산으로 재평가 중 3) 미중 정상회담에 따른 중국 규제 완화 우려로 하락한 태양광 업체 주가 되돌림 가능한 국면. Top Picks는 OCI홀딩스, 한화솔루션

도표 1. Anza, Section 232 시행 이후 미국 모듈 가격 40% 인상 전망



자료: PV Magazine, 하나증권

도표 2. 미국산 폴리실리콘 가격 20.45\$/kg으로 WoW +1.5% 상승



자료: 하나증권

미중 회담 리스크 해소

2차전지 Weekly **이배속**(이번주 배터리 속이야기) | **Overweight** | 2026.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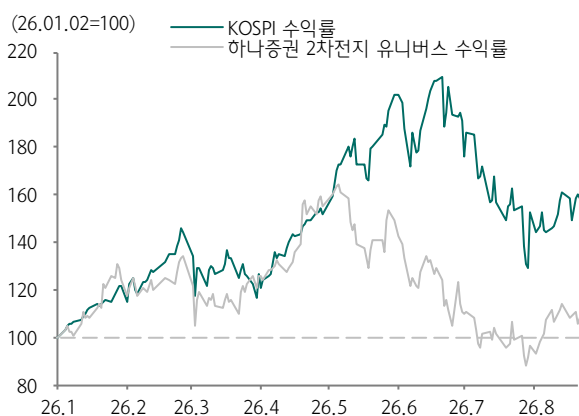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김희제 heuijekim@hanafn.com

데이터 포인트 해석 및 투자 전략 : 대형주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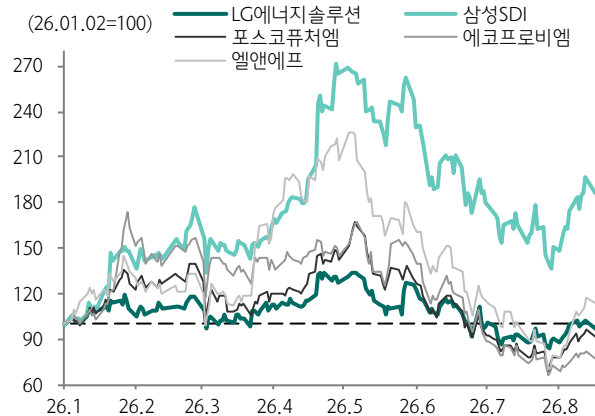
- 이번에도 미국은 중국에게 배터리 시장의 문을 열지 않았다. 지난 5월에 이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배터리는 의제화 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에는 방미 기업인 명단에 CATL 회장이 포함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진 바 있으나 이 역시 현실화되지 않았다.
-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전력망 ESS는 중국에게 개방하지 않더라도 이동 수단인 전기차 배터리의 중국 기업 진출 용인 우려 제기된 바 있으나, 전기차 배터리 역시 전력망에 연결되어 움직이는 ESS로 활용되는 시기를 앞둔 상황에서(유럽 2027년부터 본격 시행), 배터리 탈중국 정책 기조는 전력망 ESS와 전기차 배터리 영역 모두에서 작동할 것으로 판단한다.
- 미국의 자율주행 관련 포럼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가 테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음을 감안하면, 폭발 위험있는 배터리에 대한 탈중국 논리는 전기차 산업에서도 지속 작동할 것으로 판단한다.
- 이로써 최근 3주간 배터리 섹터 내에서 제기되던 세가지 리스크 중 한가지가 해소됐다. 최근 배터리 투자자들을 통해 감지되던 리스크는 크게 3가지, 1) 미중 정상 회담, 2) ESS 신규 수주 부진, 3) 북미 ESS 생산 증가에 따른 병목 비용 리스크였다. 첫번째 미중 회담 리스크는 소멸되었고, 두번째 수주 리스크의 경우 기업들이 제시해 온 신규 수주 집중 시기인 4분기 진입하며 수주가 확인될 것으로 판단한다. 세번째 비용 리스크의 경우, 후공정 병목 비용이 핵심인데, 최근 ESS 후공정 관련된 한국 기업들의 실적 가이드نس가 강하게 유지되며 이 역시 점진적 해소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
- 연말이 다가오면서, 주식 시장 전반적으로 2027년을 pricing하는 것 고려해 차년도 영업이익의 증가율 높은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AMPC 수취로 인해 영업이익의 증가폭 확대되는 LG에너지솔루션(+344.7%), 삼성SDI(+284.9%)의 성장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판단한다. 섹터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도표 1. KOSPI 대비 2차전지 섹터 수익률



자료: 한나증권

도표 2. 주요 업체 주가 추이



자료: 한나증권

SEC, CFTC 제도화 지속, 국내는 선제적 움직임

디지털자산 Weekly 온체인(On-Chain) | 2026.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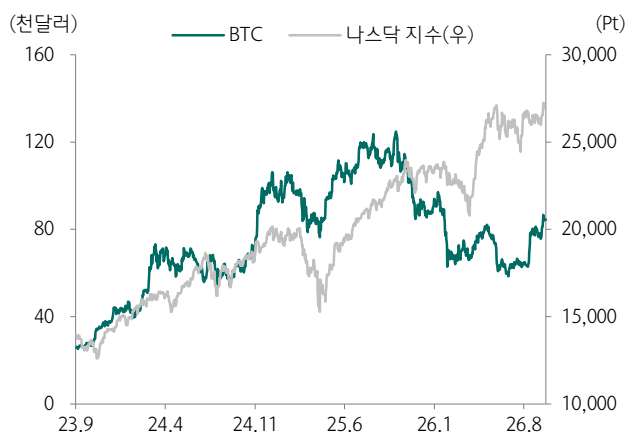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디지털자산 및 관련 기업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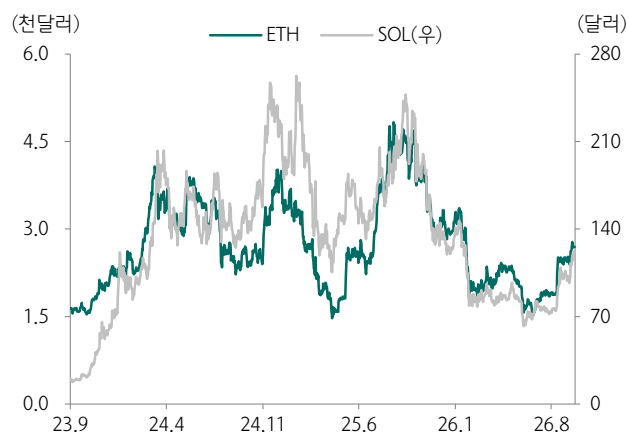
-]W
- SEC는 9월 25일 네트워크가 기능 단계에 도달한 이후 토큰 바이백,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생태계 지원 및 기존 사용성 홍보 등이 그 자체로 투자계약을 형성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바이백을 수익 제공 수단으로 홍보하는 경우 증권성 판단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CFTC는 9월 24일 기존 적격자산의 토큰화, 블록체인 기반 규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토큰화 자산과 온체인 인프라를 기존 규제체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했다.
- 토큰화 주식의 발행량은 31.4억달러로 30일전 대비 +15% 증가했다. 지속적인 성장으로 RWA 발행량의 8%까지 비중이 증가했다. 발행량 기준 점유율은 Ondo 28%, bStocks 24%, xStocks 18%, Robinhood 5%다. Binance가 주도하는 bStocks가 매주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곧 점유율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 Binance가 Circle 지분 1억달러를 취득하고 USDC 유통 확대를 위한 5년 상업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신흥시장에서의 USDC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한다. Binance의 USDC 마켓은 2024년말 140개에서 현재 320개 이상으로 증가했고, 월간 USDC 거래량도 기존 200~300억달러에서 8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됐다. 단기간에 USDT의 지배력이 크게 훼손되기는 어렵겠지만 Binance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USDC 유통을 확대하면서 Circle의 USDC 유통 기반과 수익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국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법제화 이후를 겨냥한 선제적인 PoC, MOU, 인프라 구축이 지속되고 있다. 디지털자산, 블록체인은 금융의 인터넷화를 이끄는 기술이다. 새로운 질서에서 기존에 파편화되어 있던 금융 시장이 통합되면서 글로벌 사업자들이 등장할 수 있는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라 전망한다. 국내는 글로벌보다 시장이 늦게 열리는 만큼 먼저 제도화와 동시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기업,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최근 3년 BTC 가격, 나스닥 지수 추이



자료: Artemis, Refinitiv, 하나증권

최근 3년 ETH, SOL 가격 추이



자료: Artemis, Refinitiv, 하나증권



중국 AI 모델 고도화 지속, 전기차는 무역 리스크 부각

Hana China Weekly | 2026.9.23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알리바바(BABA.US): 자체 개발 AI 칩 Zhenwu V900과 차세대 Qwen 모델 로드맵 공개

- 9/22 알리바바는 2026 Apsara Conference에서 자체 개발 AI 칩 Zhenwu V900과 차세대 Qwen 모델 로드맵을 공개. 알리바바 산하 T-Head가 개발한 Zhenwu V900은 전작 Zhenwu M890 대비 연산 성능을 약 3배 높였으며, 최대 50만 개 칩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연결해 대규모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지원하도록 설계. 2027년 1분기 양산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첨단 AI 칩 수출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체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엔비디아 의존도 축소를 위한 핵심 제품으로 평가.
- AI 모델 부문에서는 현재 Qwen 4를 학습 중이라고 밝히고, 후속 Qwen 4.5와 Qwen 5의 모델 규모를 5조~10조 파라미터까지 확대할 계획을 제시. 이는 현재 주력 모델인 Qwen3.8-Max 대비 모델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복잡한 장기 추론과 에이전트 업무 처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알리바바는 모델 학습 과정에서 AI가 데이터 검증, 실험 설계, 오류 진단과 학습 최적화를 반복 수행하는 재귀적 자기개선 기술도 적용하고 있으며, Qwen3.8-Max의 성능 개선에도 이를 활용했다고 설명.

이차전지: 2027년 중국 배터리 수요 증가세 둔화 우려 확산, 배터리 업계 내부적으로는 낙관적

- 최근 시장에서는 중국 EV 시장 부진과 ESS 수요의 선반영으로 인해 내년 배터리 수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 그러나 현재 중국 주요 배터리 공급망 기업은 80~90% 이상의 가동률 기록 중이며 배터리 업계는 시장보다 수요 전망을 낙관적으로 평가 중인 것으로 파악. 2028년 이후 생산능력 확대를 제한하려는 중국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업계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

전기차: EU는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기업에 자발적 수출 제한 요구

- EU가 중국산 순수전기차(BEV)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하이브리드차가 새로운 무역 갈등 요인으로 부상. 9/18 EU는 중국에 하이브리드차 수출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시장 점유율을 약 15%(현재 33%)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EU가 직접 제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 올해 EU의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추가 관세 부과 검토 가능성이 여러 차례 보도됐으나 아직 실제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음. EU는 자발적 수출 제한을 통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유럽 현지 투자 확대 및 현지 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9.28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unlee@hanafn.com

메타 뮤즈가 보여준 범용 에이전틱 AI의 경쟁법칙

범용 에이전틱 AI의 경쟁축, 모델 성능을 넘어 가격·사용자 접점·플랫폼으로

- 메타 뮤즈는 최상위 AI 모델 대비 뚜렷한 성능 우위가 없음에도 출시 직후 앱스토어 최상위권에 오르며 빠르게 확산
- 모델 간 사용자 체감 성능 차이가 낮아지면서 낮은 가격과 사용자 접점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
- 아마존의 뮤즈 접근 차단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토파일럿은 기존 플랫폼이 에이전트의 서비스 접근 범위와 배포력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에이전틱 AI는 사용자당 추론량을 늘려 GPU뿐 아니라 CPU·메모리·네트워크 등 추론 인프라 전반의 중요성을 높일 전망

- 뮤즈의 초기 흥행은 범용 에이전틱 AI의 경쟁력이 모델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뮤즈의 기반 모델인 Muse Spark 1.3은 장시간 에이전트 작업과 코딩 성능이 이전 모델보다 크게 개선됐지만 최상위 경쟁모델보다 뚜렷하게 앞서지는 않는다[도표1]. 그럼에도 뮤즈는 9월 8일 출시 이후 12일 만에 280만건의 설치를 기록했고 미국 앱스토어 1위까지 올라섰다. 미국 모바일 일간활성사용자도 출시 초기 64만2천명으로 ChatGPT의 출시 후 동일 시점 23만1천명을 크게 웃돌았다. 모델의 절대 성능보다 성능 격차를 사용자가 얼마나 체감하는지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 뮤즈의 빠른 확산은 개선된 성능과 메타가 이미 확보한 소비자 접점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메타는 뮤즈 이전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를 통해 AI를 대규모 사용자에게 제공해 왔다. 뮤즈에서는 이메일 전송과 여행 예약, 쇼핑처럼 답변을 넘어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기능이 강화됐다. 기존 접점만으로는 만들지 못했던 사용 경험을 모델과 에이전트 기능의 발전이 가능하게 했고, 대규모 사용자 기반은 이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유통망으로 작동했다.
- 메타는 뮤즈의 접점을 별도 앱에 한정하지 않고 기존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 뮤즈는 iOS와 안드로이드, 웹에서 제공되고 왓츠앱 안에서도 직접 대화할 수 있다. AI 글래스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사용자가 새로운 AI 서비스를 별도로 찾아가는 대신 이미 사용하는 메신저와 디바이스에서 에이전트를 호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델 간 체감 성능 차이가 낮아질수록 이런 배포력과 호출 빈도가 경쟁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 저가 공세는 메타의 사용자 접점 확대 전략을 더욱 강화한다[도표2]. 뮤즈 기본 서비스는 무료이고 사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20달러와 100달러 요금제가 제공된다. Muse Spark 1.3의 표준 API 가격도 100만 토큰당 입력 1.25달러, 출력 4.25달러로 주요 상위 모델보다 저렴하다. 에이전트는 하나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모델을 여러 차례 호출하기 때문에 토큰 단가 차이가 서비스 운영비 차이로 확대된다. 메타는 기존 오픈AI·앤티트로픽 개발환경과 호환되는 API를 제공해 개발자가 기존 코드를 크게 바꾸지 않고 모델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 에이전틱 AI에서는 기존 생성형 AI보다 사용자의 첫 접점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질문에 답을 제공하는 것이 중심이었지만 에이전틱 AI는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검색, 비교, 예약, 구매, 문서작성 같은 실제 행동까지 이어진다. 사용자가 어느 에이전트에게 처음 의도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이후 검색과 거래, 외부 서비스 호출의 경로도 결정된다. 에이전트가 사용자 행동의 시작점으로 올라갈수록 최고 성능 경쟁과 함께 사용자를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경쟁변수가 된다.
- 아마존의 뮤즈 접근 차단은 사용자 접점을 확보한 에이전트도 실제 행동을 위해서는 기존 플랫폼에 대한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뮤즈가 사용자의 쇼핑 의도를 먼저 확보해 상품을 검색하고 비교하더라도 아마존이 접근을 막으면 실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없다. 아마존은 뮤즈가 사전 허가 없이 자사 플랫폼에 접근했고 에이전트 식별과 개인정보·보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의도를 가져가더라도 실제 상품과 서비스를 가진 플랫폼에 접근해야 행동을 완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KS)	9/21	1,857,000	1,862,000	0.27%	2025~2027년 누적 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 - 자기주식 취득단 40조원이면 긍정적. 추가 주주 환원도 대기
SK이노베이션 (096770.KS)	9/21	136,600	149,200	9.22%	- 정제마진 회복과 윤활유 사업의 견조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부문의 실적 기대 - SK온의 유럽 판매 회복과 북미 ESS 배터리 공급 확대가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부각
두산 (000150.KS)	9/21	1,447,000	1,512,000	4.49%	-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고부가 CCL 수요 급증으로 전자BG 실적 고성장 전망 - 대규모 국내·중국 생산능력 증설과 자사주 전량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기대
DN오tom티브 (007340.KS)	9/21	49,300	47,900	-2.84%	- 글로벌 공장기계 업황 회복과 우주항공방산·로봇 등 고수익 산업협 수주 확대 - Heller 인수 시너지 2027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 높아
세아베스틸지주 (001430.KS)	9/21	45,050	44,300	-1.66%	- 오일&가스·방산·반도체 등 전방 수요 회복과 공격적 영업전략으로 특수강 판매 증가 - 미국내 특수합금 공장과 사우디 무게목강관 공장의 사업 본격화로 외형성장 기대
해성디에스 (195870.KS)	9/21	57,500	61,200	6.43%	- 로봇·산업용 반도체 확대로 주력 제품인 리드프레임의 판가 및 출하량 개선 기대 - 창원 생산능력 증설을 기반으로 리드프레임·패키지기판 공급 확대 가능
올릭스 (226950.KQ)	9/21	111,600	102,700	-7.97%	- 로레알·Weiss의 1,108억원 투자로 siRNA 기술력 입증 및 R&D 재원 확보 - OLX702A 2상 진입과 OLX104C 임상 결과 등 하반기 모멘텀 기대
RFHIC (218410.KQ)	9/21	60,100	58,600	-2.50%	- 방산 매출 확대와 RF머트리얼즈 실적 호조로 이익 성장세 지속 - 미국 Upper C-band 주파수 경매와 국내 5G SA-6G 투자 재개가 중장기 성장 모멘텀
티앤엘 (340570.KQ)	9/21	27,300	28,400	4.03%	- 주력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의 판매 회복과 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상반기 수익성 개선 - 핵심 고객사 Church & Dwight의 트러블케어 패치가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될 예정
더블유씨피 (393890.KQ)	9/21	10,290	10,530	2.33%	- 전기차용 분리막 수요 회복과 함께 ESS용 분리막 출하 확대에 따른 가동률 상승 기대 - 북미·국내 ESS향 공급 확대와 신규 고객사 다변화를 기반으로 실적 회복 진행중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Last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19%	-1.50%p	+78.57%	+13.24%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5%선 적용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이노베이션 (096770.KS)	9/21	136,600	149,200	9.22%	- 정제마진 회복과 윤활유 사업의 견조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부문의 실적 기대 - SK온의 유럽 판매 회복과 북미 ESS 배터리 공급 확대가 증장기 성장동력으로 부각
GS건설 (006360.KS)	9/14	38,500	34,600	-10.13%	- 건축·주택 원가를 정상화와 비용 선반영 효과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 하반기 데이터센터 수주 가능성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높일 핵심 모멘텀
피에스케이홀딩스 (031980.KQ)	9/14	157,000	163,200	3.95%	2026년 글로벌 OSAT 업체(Amkor, ASE, SPIL 등)의 리플로우 장비 발주 모멘텀 지속 - HBM-CoWoS 후공정 핵심 장비 Reflow-Descum 수혜 전망
SK하이닉스 (000660.KS)	9/7	1,647,000	1,862,000	13.05%	2025~2027년 누적 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 - 자기주식 취득만 40조원이면 긍정적. 추가 주주 환원도 대기
코스맥스 (192820.KS)	8/24	271,000	272,000	0.37%	- 국내 고성장과 미국 법인 흑자전환, 동남아 턴어라운드가 동시에 진행 - K-뷰티 수출 호조와 글로벌 ODM 1위 경쟁력이 본격 반영되는 가운데 12MF PER 11배 수준
한화에너지스페이스 (012450.KS)	8/10	1,097,000	1,021,000	-6.93%	- K9 자주포천무 중심의 유럽·중동 수출 확대로 지상방산 수주잔고 약 39.7조원까지 증가 -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과 수주 기대감 재차 확대될 전망
삼성SDI (006400.KS)	8/10	459,000	521,000	13.51%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승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팬오션 (028670.KS)	8/10	6,040	5,600	-7.28%	- BDI 강세와 탱커 운임 상승으로 벌크·탱커 부문 이익이 확대되며 호실적 기대 - SK해운 인수 VLCC의 실적 기여와 증장기 운임 강세가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507,000	31.96%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풍산 (103140.KS)	8/3	71,200	76,700	7.72%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73,200	-6.07%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215,000	8.58%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7.33%	-4.96%p	+39.89%	-25.4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 시테크TOP10 (485540)	2026.07.16	16,205	15,660	-3.4%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HANARO 미국 에이전트AI TOP2+ (022710)	2026.09.22	10,655	10,655	신규편입	- 에이전트 AI 밸류체인 중 모델 기업과 인프라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패시브 ETF. 상위 TOP2 종목을 각각 25%씩 편입하는 집중된 구조 - 9월 초 공개된 메타의 AI 에이전트 서비스 흥행으로 AI 에이전트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에이전트 AI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는 AI 모델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41,895	41.7%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TIGER 글로벌AI 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8,930	2.7%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AI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RISE AI전력인프라 (0101N0)	2026.08.28	20,520	21,405	4.3%	- 국내 AI 전력 생태계에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ETF로 발전 설비뿐 아니라 송배전, 데이터센터 후공정까지 전력 밸류체인 전반을 커버 - 하이퍼스케일러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북미 지역의 노후 전력망 교체로 전방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전력망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은 국내 전력기기 업체에 수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RISE 미국AI클라우드 인프라 (0127R0)	2026.09.22	16,720	16,720	신규편입	- 미국 상장 네오클라우드 4개 기업과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6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네오클라우드와 네트워크, 전력, 광통신 등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을 함께 편입하는 것이 특징 - AI 연산 수요 증가로 데이터센터의 전력·네트워크 등 인프라 병목이 심화되는 가운데, 컴퓨팅 자원을 공급하는 네오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의 동반 수혜 기대
HANARO 글로벌 금채굴기업 (473640)	2026.08.28	36,855	33,450	-9.2%	- 글로벌 우량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 금 현물 투자와 달리 편입 기업들의 배당 지급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 -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금 가격 상승 국면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되는 금 채굴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부각될 전망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9,255	-7.3%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과세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O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재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국내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원(KRW)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8.42	93.59	5.8%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인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26.13	596.03	82.8%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러인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FTXL (미국 반도체 펠리티)	2026.09.22	247.92	247.92	신규편입	• 미국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기업 중 이익, ROA, 모멘텀, 현금흐름 등 펀더멘털 및 주가 흐름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ETF. 현금창출력을 기반으로 편입 비중을 산정하는 것이 특징 •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초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경계감도 동반 상승하는 구간에서, 특정 종목 쏠림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C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3.09	103.09	10.7%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PHQ (미국 대형 펠리티 주식)	2026.03.23	75.24	84.81	12.7%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NCLD (AI 컴퓨팅 인프라)	2026.09.22	24.84	24.84	신규편입	• AI 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는 네오클라우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확보가 주요 병목으로 부상함에 따라, 고성능·고효율 AI 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의 가치가 부각될 전망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82.63	181.08	-0.8%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6.22	158.23	1.3%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증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Global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달러(USD)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9.20	9.21	9.22	9.23	9.24	9.25	9.26
중국 9월 기준금리 (3.0%, 이전치 3.0%)		유로존 9월 소비자가치지수 (E -16.0, 이전치 -15.5)	- 한국 9월 소비자심리지수 (E --, 이전치 104.5) - 독일 9월 제조업 PMI (E 54.0, 이전치 54.3) - 독일 9월 서비스업 PMI (E 49.9, 이전치 49.7) - 유로존 9월 제조업 PMI (E 52.6, 이전치 52.7) - 유로존 9월 서비스업 PMI (E 51.4, 이전치 51.6) - 미국 9월 제조업 PMI (E 53.7, 이전치 53.9) - 미국 9월 서비스업 PMI (E 55.9, 이전치 56.5)	- 일본 9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4.9) - 일본 9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2.5) - 독일 9월 IFO 기업환경 (E 89.0, 이전치 88.8) - 독일 9월 IFO 예상 (E 89.3, 이전치 89.1) - 미국 8월 신규주택매매 (E 1.4%, 이전치 -10.5%)	- 미국 8월 내구재 주문 (E -0.3%, 이전치 1.1%) - 미국 9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E 47.5, 이전치 47.8)	
9.27	9.28	9.29	9.30	10.1	10.2	10.3
	- 일본 8월 PPI (E --, 이전치 3.6%) - 중국 8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11.2%)	- 유로존 9월 소비자가치지수 (E --, 이전치 --) - 미국 9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가치지수 (E 91.0, 이전치 89.4)	- 한국 8월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3.6%) - 일본 8월 소매판매 (E --, 이전치 2.1%) - 일본 8월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3.9%) - 중국 9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E --, 이전치 51.5) - 중국 9월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1.4) - 미국 9월 ADP 취업자 변동 (E 58k, 이전치 38k) - 미국 8월 PCE (E 3.7%, 이전치 3.7%)	- 일본 3분기 단칸 대형 제조업 지수 (E 25, 이전치 22) - 일본 3분기 단칸 대형 서비스업 지수 (E 36, 이전치 37) - 한국 9월 수출 (E --, 이전치 68.7%) - 한국 9월 수입 (E --, 이전치 22.5%) - 미국 9월 제조업지수 (E 55.0, 이전치 54.6)	- 한국 9월 CPI (E --, 이전치 3.1%) - 일본 9월 실업률 (E --, 이전치 2.4%) - 유로존 9월 CPI (E --, 이전치 3.2%) - 미국 9월 실업률 (E 4.2%, 이전치 4.1%)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